

우리 삶을 흔드는 변화의 순간, 예술로 마주하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주제발표

'변화·실천' 키워드...역대 최소규모작가참여 예정 단일작품 아닌 작업 흐름 보여주는 '선'의 전시 구성 시민 참여 프로젝트 '쇠걸립' 등 공동체 예술 실험도

"광주라는 도시는 '변화'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가장 적절한 도시입니다. 광주의 민주화 운동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깊은 울림을 주고 있고, 이곳에서의 변화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 몸에 새겨진 살아있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2일 오후 광주 기간답담회를 열고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주제와 기획 방향, 참여 작가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호 추 니엔 예술감독과 윤범모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최경화·박가희·브라이언 쿠안 우드 큐레이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주제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 마지막 구절에서 가져온 문장으로, 오늘날의 위기 속 예술이 지닌 변화의 가능성을 탐구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변화'(Change)와 '실천'(Practice)을 두 개의 핵심 개념으로 삼는다.

호 추 니엔 감독은 "변화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조용히 이어진다"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개념인 '실천'은 변화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예술적 실천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관계 맺기의 방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역대 가장 적은 수의 작가가 참여한다. 참여 작가는 최대 45명으로, 작가 수는 줄이되 각 작가 작품을 더 많이 선보이는 방식으로 작업세계의 깊이를 보여준다는 방안이다.

호 추 니엔 감독은 "통상적인 비엔날레가 많은 작가의 단일 작품을 모아 보여주는 '점'의 전시라면, 이번 전시는 한 작가의 여러 작업이 이어지는 '선'의 전시에 가깝다"며 "작가의 삶과 예술적 실천의 궤적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참여 작가 가운데 노르웨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본계 미디어아티스트 코스기 다이스케



제16회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9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사진은 왼쪽부터 호 추 니엔 예술감독, 최경화, 박가희, 브라이언 쿠안 우드 큐레이터.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의 영상 작업 '어긋난 무게'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됐다. 그의 작품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앓는 아버지의 일상을 긴 호흡의 장면으로 기록하며, 신체의 변화와 함께 가족 관계와 시간의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최경화 큐레이터는 "이 작품은 사회적 제도 변화를 요구한다기보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 묻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적 실천의 사례도 제시됐다. 박가희 큐레이터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 광주에서 전개된 시민미술학교 활동을 예로 들며 "당시 예

술은 오브젝트 생산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장이었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다. 권병준, 박찬경 작가는 전통 공동체 의례인 '쇠걸립'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시민이 기부한 금속을 활용해 악기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다시 공동체로 돌려주는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그래픽 아이덴티티 작업에는 디자이너 강이린이 참여하며, 실험음악가 김선익과 사운드 아티스트 재클린 키오미 코크 등의 작업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호 추 니엔 감독은 "릴케의 시가 그렇듯, 이번 전시 역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관람자가 스스로 질문하고 선택하도록 열어두고자 한다"며 "결국 전시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는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람객이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전시가 아니라 다시 찾게 되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며 "작품과의 조우 속에서 각자가 제마다의 변화를 경험해 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9월5일부터 11월15일까지 72일간 열릴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현/시

광주 3·15의거에 부처

광주가 옵니다. 우리의 소년이 옵니다

박은영



광주가 옵니다

그날처럼 3·15의거가 옹골차게 걸어옵니다

1960년 3월 15일, 두 눈을 부릅뜬 채

주권을 도둑맞은 주인들이 있었습니

다 검은 그림자가 소년처럼 순진한 투표함을 삼

키던 밤

단힌 창문을 허물고 새어나오는 진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사의 심장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국민의 깨끗한 한 표가 검은 수렁에 수치를 당한 그날

경찰봉에 용기가 뭉그러져도 진실의 눈동자는 더 맑아졌습니다

첫 저항이며 절규의 외침에도

민주광장에 절망이 떠돌 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금강석처럼 단단해야 할 민주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가를,

이름 모를 시민들의 눈물이 이 땅의 새벽을 밀어 올렸습니다

진실 없는 권력은 풀 한 포기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역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대한의 산천엔

최후탄 냄새보다 더 독한 의문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급납로는 붉게 물들고 진실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투표지에 국민의 꿈을 꼭꼭 당부한 그날

모두의 꿈을 짓밟은 검은 악마들

국민의 피눈물을 먹고 정이가 깨어났습니다

민주를 침묵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피를 먹고 눈물을 먹고 함성으로 자라납니다

휘몰아친 태풍에

갈갈이 찢긴 만신창이 몸으로 울부짖던 날

백건을 쓰고 뚜벅뚜벅 걸어가던 장송행진곡

청중 강제동원과 선거 연설 방해, 유권자 조작

경찰은 무차별로 발포하고

눈에 최루탄이 박힌 민주주의는 죽음을 받고

총탄에 갈라진 진실의 기둥을 볼들었습니다

빛고을을 품고 서 있는 성산 무등에서

젊은 열사의 푸른 영혼들이 전국을 흔들어 깨우던 날

골목 골목마다 누비는 민주를 깃발들

역사의 굽이마다 우뚝 일어서는 의항과 예향

영원한 청춘의 도시

빛나는 광주가 옵니다

대낮처럼 밝디 밝은 우리의 소년이 옵니다.

봄, '광주여성길'이 다시 열린다

'두흙길', '백단심길', '홍단심길' 3개 코스 5인 이상 신청...전문해설사 동행

광주 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걸으며 만나는 인문 도보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찾는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시민들이 걸으며 체험하는 '광주여성길' 봄 시즌 도보투어를 운영한다.

'광주여성길'은 2022년부터 재단이 운영해온 여성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다. 양림동과 충장로 일대를 중심으로 '두흙길', '백단심길', '홍단심길' 3개 코스로 운영된다. 각 코스에서는 여성 역사 인물과 장소를 중심으로 광주 여성 100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두흙길'은 양림동을 중심으로 근대 여성교육과 여성 선교사의 삶을 주제로 구성된 코스다. 담요 한 장과 보리쌀 두 홉, 현금 2천으로 시작한 서서평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삶을 가리며 걷는 길이다.

'백단심길'은 3·1운동과 항일운동에 참여한

광주 여성들의 삶을 조명하는 코스로, 김필래를 중심으로 지역 여성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따라 걷는다.

'홍단심길'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충장로 일대 여성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덕신을 중심으로 폐습을 바로잡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광주 여성들의 발자취를 되짚는다.

2026년 봄 시즌 도보투어는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5인 이상 신청 시 참여할 수 있다. 각 코스는 약 1시간30분 소요되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여성사와 지역 역사 이야기를 안내한다. 재단은 올해 일부 코스를 조정하고 1인 예약 신청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운영체계를 정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s://www.gjwf.or.kr/business/04/03>)에서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